

## 연구논문

#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에 나타난 한인의 미주 이민 초창기 모습 연구

---

김미영

홍익대학교 교양과 교수, 국문학 전공

peace6539@hongik.ac.kr

---

I. 머리말

II. 유형지 멕시코를 거쳐 목적지 미국으로

III. 초창기 미국 이주 한인 삶의 리얼리티: '헛된' 구름을 잡으려고

IV. 『구름을 잡으려고』에 나타난 1930년대 주요섭의 철학

V. 맷음말

---

## I. 머리말

---

주요섭은 1935년 2월 16일부터 1935년 8월 4일까지 『동아일보』에 『구름을 잡으려고』(총 165회)를 연재했다. 이 작품은 미국 이민 초창기 재미 한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단편소설이다. 이 작품의 첫 문장은 “집구세기의 맨 마지막해 봄이었다. 제물포-그것은 조선이 열어놓은 출입문의 오직 하나였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출입문이었다”이다.<sup>1</sup> 작가는 이로써 이민 초창기 재미 한인의 미국에서의 삶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서사는 30세 노총각 ‘박준식’이 양인(洋人)이 운영하는 ‘개발회사’의 알선으로 제물포항에서 미국행 배에 승선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지만 준식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내려져 목화 농장에서 4년간 노예노동에 시달린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 본토로 밀입국한 그는 “황금이 뒤굴뒤굴 구르는”<sup>2</sup> 미국 서부에서 30여 년간 다양한 노동을 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매진하지만, 끝내 64세에 무연고자로 사망함으로써 미국 이민 1세대 한인의 비극적 삶을 대변한다.

주요섭(朱耀燮, 1902~1972)은 단편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의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번역가, 아동문학가, 사회평론가, 교육자이기도 했다. 1902년, 평양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미션스쿨에 다니다가 1918년(16세)부터 1919년(17세) 초까지 일본에서 영어 공부를 했다.<sup>3</sup> 1920년(18세)

---

1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서울: 좋은책만들기, 2000), 6쪽. 주요섭은 1899년 제물포가 단 하나의 열린 항구라 말했으나,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조약으로 부산항이 바로 개항되었고, 1880년에 원산항, 1883년에 제물포항이 개항되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미국행 선박은 청나라에서 출발하여 제물포항에서 조선인을 태우고, 요코하마항에서 일본인을 태운 후 하와이로 갔기에 주요섭의 이 서술은 미국행 선박의 출입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다.

2 위의 책, 28쪽.

3 주요섭은 일본 도쿄 아오야마중학교를 다녔고, 1919년 3·1운동 직후 귀국하여 평양에서

부터 1927년(25세)까지 8년간은 중국에서 유학했고,<sup>4</sup> 중국으로 귀화한 뒤 1927년 중국 여권으로 미국으로 건너가<sup>5</sup> 1929년까지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밟았다.<sup>6</sup> 그는 미국 유학 시절에 중국 유학 때와는 달리, 집안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접시 닦기, 운전수, 청소부를 하며 고학했다. 즉, 미국에서 그는 이주노동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sup>7</sup> 이 사실은 중요하다. 중국에서는 유복한 유학생이자 지식인이었던 그가 단편 「인력거꾼」(1925), 「살인」(1925) 등에서 중국 하층민과 중국 내 조선인 하층민의 삶을 편견 없이 연민의 시선에 담아내는 여유를 보였지만,<sup>8</sup> 미국 체험에 바탕한 기록물 「유미외기(留米外記)」(1930)나 장편소설 『구름을 잡으려고』(1935), 단편소설 「열 줌의 흙」(1967)에서는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리얼하게 그려 낸다.<sup>9</sup> 주요섭은 “내가 직접 노동자

---

『독립신문』을 발간하다 출판법 위반으로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서울: 성문각, 1980), 426쪽.

- 4 주요섭은 형 주요한을 따라 중국에 갔다. 그는 「불놀이」(1919)를 지은 주요한(1900~1979)의 동생이자, 연극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한 주영섭(1912~?)의 형이며, 부친 주공삼(1875~1953) 목사로 인해 기독교의 영향을 일찍 받았다. 주요섭(저), 백철(편), 『북소리 두동등』(서울: 대광문화사, 1984), 390쪽.
- 5 강진구, 「주요섭 소설에 재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어문논집』 57(2014), 253쪽.
- 6 정정호, 「주요섭 문학에 나타난 情의 윤리와 사랑의 원리: 장편 『구름을 잡으려고』의 기독교적 읽기 시론」, 『비교문학』 61(2013), 312쪽.
- 7 위의 글, 312쪽.
- 8 최유학, 「주요섭의 『인력거꾼』과 옥달부의 『박전』 비교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3(2014), 199쪽; 이승하, 「주요섭 초기작 중 상해 무대 소설의 의의」, 『비교한국학』 17-3(2009), 399~427쪽; 최학송, 「해방 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재중 조선인 문학 연구』(서울: 소명출판, 2013), 197~225쪽.
- 9 주요섭의 미국 체험을 형상화한 소설들에 그려진 미국은 1929년부터 1934년 봄까지 5년간 미국 유학을 한 한흑구가 1930년대에 발표한 작품들에서 형상화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미영,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1930년대 한흑구의 단편소설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48(2023), 287~319쪽; 김미영, 「한흑구 문학에 나타난 미국의 영향 연구」, 『한국학』 47-4(2024), 383~421쪽.

가 되어보고 또 간간 업(業)이 업서서 배골아가지고 거리로 나가 방황하며 음식집 유리창을 물끄럼이 들여다보고 서잇쓸 때 그때에야 참으로 노동계급의 생활이 엇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했다.<sup>10</sup> 미국 체험이 반영된 작품들에서 그는 더 이상 신경향파적인 연민이 아닌, 경제 대국 내 최하층민의 입장에서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담아낸다.

미국에서 귀국한 후 그는 신문사에 잠시 근무했으나, 그의 평생 직업은 대학의 교수였다. 그는 1934년부터 1943년까지 약 10년간은 베이징 푸런[輔仁] 대학 영문과 교수로,<sup>11</sup> 1953년부터 1965년까지 약 13년간은 서울의 경희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했다.<sup>12</sup>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구사하고 국제적인 감각까지 구비했던 그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즈》의 주필과 국제펜(PEN) 클럽 한국본부의 사무국장, 부위원장, 위원장을 두루 역임했고, 1971년에는 한국번역가협회 초대회장을 맡기도 했다.<sup>13</sup> 작가로서 그는 40여 편의 단편과 장편 『구름을 잡으려고』(1935), 『1억 5천만 대 일』(1957~1958), 『망국노 군상』(1960), 『길』(1972), 중편 「첫사랑 欲」(1925~7), 「셀스 걸」(1933), 「미완성」(1937), 「떠름한 로맨스」(1987)와 몇 편의 영문소설을 남겼다.<sup>14</sup>

지금껏 주요섭 문학에 관한 논의는 「사랑손님과 어머니」, 「아네모네 마담」, 「인력거꾼」, 「살인」을 중심으로 하여 1920~1930년대 단편들에 국한되어 왔

10 주요섭, 「미국의 사상계와 재미조선인」, 《별건곤》 16·17(1928년 12월호), 160쪽.

11 주요섭, 앞의 책(1984), 391쪽.

12 정정호, 앞의 글(2013), 305쪽.

13 주요섭(저), 정정호(편), 『주요섭 소설 전집 4』(서울: 푸른사상, 2023), 311~313쪽.

14 영문 소설은 김유신을 다룬 중편 *Kim Yushin: The Romance of a Korean Warrior of 7 Century*(1947)과 한글명 『흰 수탉의 금: 신라시대 이야기와 전설』(어문각)인 장편소설 *The Forest of the White Coak: Tales and Legends of the Silla Period*(1962)가 있다. 주요섭은 스포츠에도 재능이 있어 마라톤 선수와 축구선수로 활동했다. 「一着은 朱耀燮君, 상해서 거행한 마라ソン」, 《동아일보》, 1924년 12월 25일, 2면; 주요섭, 「7회 극동 올림픽 대회 이야기(속)」, 《시대일보》, 1925년 7월 6일, 4면.

다.<sup>15</sup> 이는 그의 작품세계가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최근에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새롭게 그의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장편『구름을 잡으려고』가 있다. 2023년에 푸른사상사에서『주요섭 소설 전집 1~8』을 책임 편집해낸 정정호가 제일 먼저 이 작품에 대한 기독교적 독해를 시도했다. 2013년에 그는 이 작품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주요섭의 가족과 동포, 이방인에 대한 사랑과 정(情)의 마음을 읽어 냈다.<sup>16</sup> 이듬해에 강진구는 이 작품을 포함하여 해외 체류 경험에 바탕한 주요섭의 소설들에서 유학생, 이주노동자, 기구한 운명의 여성 등, 해외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코리안의 디아스포라를 분석했다.<sup>17</sup> 또한 서승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미국 사회의 최하층민임에 주목하여『구름을 잡으려고』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잠식된 식민지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 분석했다.<sup>18</sup> 한편, 구재진은 이 작품에서 멕시코의 흥인(인디언)과 조선인 노동자 간의 우정을 읽어내고, 미국 내 조선인 이주 노동자가 자녀 교육에 헌신하고 ××민보나 ××회에 기부하는 등, 나라 밖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함을 나라 밖에서 ‘국민되기’의 과정으로 읽어 냈다.<sup>19</sup> 이 밖에도 이가성(Li JiaXing)은 주요섭의 미국 배경 소설과 기타 글들<sup>20</sup>은 당시의 미국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열악

15 김학균, 「주요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서발터니티’ 연구」, 『배달말』 49(2011), 147~169쪽; 김양수, 「주요섭 소설 속의 상하이: <인력거꾼>과 <살인>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72(2018), 103~121쪽; 김리안,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함의된 주요섭의 작가의식 연구」, 『한민족어문학』 80(2018), 269~295쪽.

16 정정호, 앞의 글(2013), 303~328쪽.

17 강진구, 앞의 글(2014), 247~274쪽.

18 서승희, 「근대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의 윤리: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2(2016), 159~185쪽.

19 구재진, 「우정과 헌신, 조선 밖에서 조선 국민 되기: 주요섭의 미국 이주 서사 연구」, 『구보학보』 17(2017), 165~194쪽.

20 주요섭, 「유미외기」, 『동아일보』, 1930년 2월 22일~4월 11일, 총26회 연재, 4면; 주요섭, 「내눈에빛원행기」, 『우라키』 3(1928년 4월호); 주요섭, 「미국의 사상계와 재미 조선인」,

하고 불평등한 사회였음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고,<sup>21</sup> 정주아는 재미 한인 1세 대가 안창호 같은 ‘선생님’의 지도 아래 민족의식의 구심점 역할은 잘 감당 했으나, 개인들은 불행했는데, 이 작품에는 이에 대한 작가의 연민이 잘 나타나 있다고 했다.<sup>22</sup> 정리하면,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는 디아스포라적 정동에 노출된 경계인으로, 또 미국의 최하층민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식민 상태였던 조국의 해방에 일조하려는 실천만은 끝내 놓지 않았던 미국 이주 조선인들의 슬프고도 경외스러운 모습이 담긴 작품이라 하겠다.

이런 논의들을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이 작품을 다시 논구하려는 이유는 주요섭이 이 작품을 연재하면서 시작과 끝에 덧붙인 말들 때문이다. 그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쓴 「작가의 말」에서 이 작품은 자신이 북미에 유학하는 동안 함께 노동했던 수백 명의 조선인 이주노동자들의 실제 삶을 ‘준식’에 대입한 ‘실화’라고 밝혔다.<sup>23</sup> 연재를 마치며 쓴 「글을 마치고 나서」에서는 “리얼리즘 위에다가 작자의 철학을 가미”해서 이 작품을 썼노라 술회했다. 하여 이 글은 미국 이민 초창기 한인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리얼리티’의 차원에서 『구름을 잡으려고』를 분석해 보고, 또 그 형상화에 가미된 주요섭의 ‘철학’을 짚어 보려 한다. 「작가의 말」에서 주요섭은 “돈을 죄아서 이역 만리 미국으로 간 ‘준식’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흰머리 외엔 남은 게 없는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자”이 작품을 쓴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영토적(territorial) 혹은 민족적(ethnic) 차원에서의 미국에 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이, 또 낯

---

《별간곤》 16·17(1928년 12월호), 159~161쪽; 주요섭, 「미국문명의 가치관」, 『동아일보』, 1930년 2월 6일, 4면.

21 이가성, 「주요섭 문학연구: 외국 체류 경험의 문학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8), 55쪽.

22 정주아, 「국제 노동 시장의 경험과 민족주의자의 딜레마: 주요섭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52(2020), 78~86쪽.

23 주요섭, 「작가의 말」, 『동아일보』, 1935년 2월 16일, 2면.

선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아무런 기술도 갖추지 못한 채 이주를 단행한 조선인들의 어려움을 보여 줌으로써 무분별한 조선인의 미국 이주를 막고자 한 주요섭의 의도가 어른거린다. 이 글이 디아스포라나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가 아닌, 미국 내 한인 이민 1세대 삶의 리얼리티와 그에 관한 1935년경 주요섭의 철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II. 유형지 멕시코를 거쳐 목적지 미국으로

『구름을 잡으려고』에서 준식은 “밥 때문에” 시골에서 800리를 걸어서 인천 제물포로 온 가난한(desperate) 조선의 청년이다. 그는 양인(洋人) 모리스가 운영하는 개발회사에서 일본인들이 일부를 뽑아 양국(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을 듣는다. “부자만 사는 나라에 가서 노동을 했으면 조선 안에서 꼼지락 꼼지락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다. 게다가 돈도 안 받고 배까지 그냥 태워다준다고 하니 이런 땡잡을 데가 또다시 있으랴!”라며 언문도 깨치지 못한 그가 읽지도 못하는 미국행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지장을 찍는다.<sup>24</sup> 금의환향을 꿈꾸며 도회지로 떠나는 1970년대 농촌 청년들처럼, 준식은 부자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을 쫓아 태평양을 건넌 것이다. 그가 미국행을 결심한 데는 제물포에서 본 미국의 첫인상 두 가지가 작용했다. 첫째는 조선인의 새우젓 배나 청국의 정크[舟]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양인의 쇠배였고, 둘째는 양인들은 언제나 일꾼 품삯을 후히 쳐 준다는 사실이었다.<sup>25</sup> 이렇듯 준식은 미국의 높은 기술력과 경제력에 매혹되어 1899년 미국행을 감행했다.

---

24 주요섭, 앞의 책(2000), 15쪽.

25 위의 책, 15쪽.

실화에 기반해 썼다지만, 이 작품에서 ‘준식’이 19세기 마지막 해에 미국으로 떠났다는 서술은 실제 한인의 미주 이민사 최초 시점보다 좀 빠른 설정이다. 최초의 한인 미주 이민은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에 모인 121명의 조선인 지원자들이 일본 선박 현해환(玄海丸, ケンカイマル)을 타고 12월 24일에 일본 나가사키항에 도착하여 검역소의 신체 검사에 합격한 101명만이 미국 태평양 횡단기선이자 상선인 ‘겔릭호(S.S. Gaelic)’를 타고<sup>26</sup> 태평양을 건넜고, 이들 가운데 1903년 1월 13일, 미국 입국 심사 및 검역을 통과한 93명만이 최종적으로 하와이에 상륙한 것이었다.<sup>27</sup> 하지만 최근에 1893년 시카고박람회에 참석한 조선 대표 정경원 앞에 나타났던 박용규와 서병규가 최초의 조선인 미국 이민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28</sup> 『구름을 잡으려고』에서의 1899년 이주는 이런 최근 주장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겠다.<sup>29</sup>

준식의 선상(船上) 생활은 미국 TV드라마 <뿌리(Roots)><sup>30</sup>에 묘사된 아프리카 흑인 노예선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죽지 않을 만큼의 식사와 열악한 숙소도 그렇고, 밤에 선실을 채워 두고 양인이 동양인 노동자들을 감시하며,

26 이는 인천에 소재한 ‘한국이민사박물관’ 상설전시관 자료에 의한 것임.

27 이광규, 『재외동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47쪽

28 이현, 「1893년 시카고박람회 한국전시관 복원의 의미: 한인 미주이민사 10년 앞당겨야 한다.」, 『통일한국』, 2005년 1월호, 74~75쪽.

29 한인의 미주 이민은 3기로 구분된다. 설명은 임진희, 「초국가적 한흑 도시 공간: 레너드 장의 『식료품점』」, 김민정·이경란, 『미국 이민소설의 초국가적 역동성』(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11), 277~279쪽과 이광규, 앞의 책(2000), 165쪽 참고. 멕시코 이주는 1905년 제물포를 출발한 1,033명 조선인이 에네켄(Henequen, 용설란) 농장의 계약직 노동자로 멕시코 메리다항에 도착해 1,031명이 하선(2명 선상 사망)하여 아시엔다(집단농장)에 배치된 1회가 전부다. 이광규, 앞의 책(2000), 48~57쪽.

30 미국 ABC가 1977년에 TV 미니시리즈로 방영하여 시청률 51%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뿌리(Roots)>는 알렉스 해일 리가 실존인물 이야기를 소설화한 「Roots : The Saga of an American Family」(1976)를 각색한 것으로, 한국에서도 1979년에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낮에는 갑판 위에서 ‘준식’들이 걸어 다닐 공간을 동아줄로 매어 협소하게 제한한 것도 그렇다.<sup>31</sup> 선상 생활 묘사에서 이 작품의 특이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준식이 ‘춘삼’에게 성적 욕망을 느낀 대목이다.

준식이는 흥분되었다. 그리고 온 몸에 열이 올랐다. 그는 가만히 마치 도적놈이 만져서는 안 될 남의 보물을 몰래 만져보듯이 춘삼이의 팔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다. 어떤 짜르르한 흥분이 그의 전신을 부르르 떨게 했다. 그는 몸을 반쯤 일으켰다. 춘삼이의 입술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입술밖에 아무것도 못 보는 듯했다. 춘삼의 얼굴 전체가 그 입술로 변해버린 것처럼 보였다. 준식이는 부지불식중에 춘삼이를 꽉 끌어안았다.<sup>32</sup>

준식은 곧 충동을 억제하고 춘삼을 친동생처럼 귀여워하며 챙겨 주는 것으로 서술되지만, 주인공이 동성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이 장면을 1935년 조선의 대표 일간지 연재소설에 자세하고도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은 주요섭의 이색적인 선택이라 하겠다. 일제강점기 한국 소설에 동성애 관련 묘사는 흔치 않다. 춘원 이광수가 데뷔작인 일문 단편소설 「사랑인가」(《백금학보》, 1909)에서 동경에 유학 중인 중학생 ‘문길’이 일본인 미소년 ‘마사오’에게 성적 흥분과 사랑을 느낀 것으로 묘사한 바 있고, 단편소설 「윤광호」(《청춘》 13, 1918.4)에서 동경 K대학 특대생인 ‘윤광호’가 남학생 P에게 혈서까지 쓰며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후 단도로 자살하는 장면을 그린 바가 있다. 춘원 소설의 동성애적 요소는 고아 출신인 춘원의 애정 갈증 콤플렉스의 투사로 이해되어 왔다.<sup>33</sup> 하지만 주요섭이 『구름을 잡으려고』에 삽입한 인용문의

31 주요섭, 앞의 책(2000), 39쪽.

32 위의 책, 26쪽.

33 이희춘, 「춘원소설의 동성애에 관한 고찰」, 『어문학』 49(1988), 163~191쪽.

장면은 여성과의 연애 경험이 전무한 노총각 준식이 훌륭한 며나면 타국으로 떠나는 선상에서 느꼈을 외로움과 불안감, 막막함에서 비롯된 애정, 따듯함, 안정에의 희구를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주요섭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미국 유학을 다녀온 바 있는 한국 근대작가 한흑구의 단편 「길바닥에서 주운 편지」(《대평양》 창간호, 1934)를 보면,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문화의 일종인 ‘사서함 제도’를 활용해 연애하는 남녀가 등장하고, 주인공이 혼전 동거를 쉽게 말하는 등,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면모가 나타난다.<sup>34</sup> 이렇듯 미국 유학파인 주요섭과 한흑구의 소설 속 연애나 성애 묘사는 당시 조선 작가들의 통상적 성 관념이나 연애 방식을 웃도는 일면이 있다.

『구름을 잡으려고』의 선상 생활 묘사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미국행 선박에 함께 탄 조선인과 청인, 일인이 서로 대립하거나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은 것으로 형상화된 점에 있다. 선상뿐 아니라, 미국 생활을 그린 중후반부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선상에서 조선인 ‘일준’이 배탈이 났을 때 양인들이 그를 방치하자 청인이 나서서 이에 항의하다가 양인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준식은 그 청인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청인은 준식의 품에서 사망한다.<sup>35</sup> 주요섭은 이 작품에서 동양인들 간 관계를 대체로 우호적으로 묘사한다. 특히 조선인과 청인의 관계가 그러한데, 이는 주요섭이 오랜 기간 중국에서 공부했고, 미국 유학도 중국 여권으로 한 개인사를 떠올리게 한다.<sup>36</sup> 또 이 작품에서는 백인과 조선인이 직접 접촉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모든 사건은 조선인들 간에 발생하고 있음도 특징적이다. 《동아일보》나 《신한민보》에 실린 주요섭의 글을 보면, 그가 국제 정

34 자세한 것은 김미영, 앞의 글(2024), 388~391쪽 참고.

35 주요섭, 앞의 책(2000), 59쪽.

36 장영우, 「작품해설: 한국 근대소설사의 결락과 보완」, 장영우(책임편집), 『주요섭 중단편 선: 사랑손님과 어머니』(서울: 문학과사상사, 2012), 283쪽.

세에 민감했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태평양문제」라는 글에서 주요섭은 1927년 캘리포니아 각국 대학생 모임에서 일본 학생들이 조선 문제에 대해 동정적임을 전한다.<sup>38</sup> 주요섭이 이 작품에서 일인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자제한 것도 이런 그의 신중함 때문으로 읽힌다.

『구름을 잡으려고』의 본격 서사는 양인들이 ‘준식’들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내려 주면서 시작된다. 준식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기대는 이로써 처음부터 어긋난다. 준식은 멕시코의 목화 플랜테이션에서 땅별과 무더위, 배고픔과 갈증, 매질과 감시에 시달리며 무임금의 노예노동에 시달린다. 돼지우리 같은 웜막집, 옥수수로 만든 또띠야(tortilla)와 맹물뿐인 식사, 낡은 홀웃만 지급되는 농장 생활은 수형 생활이나 다름없었다. 농장 주인은 아주 노동자들의 팔뚝에 화인을 새기고 허리에 방울을 달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팔리지 않고도 좋”이 된 ‘준식’들은 하루 14시간씩 뼈약볕에서 목화를 따야 했는데,<sup>39</sup> 문제는 이 노동이 ‘종신’이라는 점이었다. 당시 멕시코를 통치한 순 서반아인(스페인계)들은 도망친 노동자를 숨겨 준 사람까지 엄벌했다. 멕시코에서 ‘준식’들은 “자고 먹고 일하고 매 맞는 것”이 생활의 전부여서 ‘움직이는 송장’ 같았다고 묘사되어 있다.<sup>40</sup> 김호선 감독의 영화 〈애니깽(Henequen)〉(1996)을 보면, 이런 ‘준식’들의 멕시코 농장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sup>41</sup>

37 주요섭은 『동아일보』와 『신한민보』에 문학 외에도 미국, 교육, 국제 정세, 정치사회에 관한 글들을 실었다. 주요섭, 「무정부주의를 반박함」, 『신한민보』, 1927년 11월 3일, 4면; 주요섭, 「군비축소회의의 유래와 현세」, 『동아일보』, 1932년 1월 1~3일, 1면.

38 주요섭, 「태평양문제」, 『신한민보』, 1927년 12월 22일, 4면.

39 주요섭, 앞의 책(2000), 75~79쪽.

40 위의 책, 86~90쪽.

41 이 영화는 1905년 멕시코 아주 한인들의 용설란(에네켄) 농장에서의 혹독한 삶을 그리고 있다. 아주민들은 아주 경비를 4년간의 부채노동(계약노동)으로 탕감해야 했다. 멕시코는 당시 해외 아주 중 가장 먼 곳으로, 국교나 인적 교류가 거의 없는, 낯선 라틴 문화권의 뫽시 더운 나라여서 아주민들의 고생이 특히 심했다.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서울: 지식산업사, 1998), 5~6쪽.

그런데 소설『구름을 잡으려고』나 영화〈애니깽〉에서 조선인의 미주 이민 알선자는 모두 일본인들이고, 멕시코 농장의 감독관은 멕시코인들(스페인사람)이며, 그 농장의 소유주는 모두 미국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당시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을 차취한 최종 수익자가 미국인이었던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이 작품의 ‘리얼리티’의 일면이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던 시절에는 프랑스가 멕시코를 지배했으나, 19세기 후반 멕시코에서 프랑스를 몰아낸 미국은 이후 멕시코를 직접 지배했다.<sup>42</sup> 한인의 미국 이민사에 멕시코 이민사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멕시코는 ‘준식’들에게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벗어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유형(流刑)의 땅이었다. 하지만 ‘준식’은 흥인(인디언)의 도움으로 그곳을 벗어나 미국 본토로 온다.<sup>43</sup> 멕시코에서는 미국 백인과 스페인계 멕시칸이 강자(強者)였고, 원주민인 흥인과 이주노동자들은 약자(弱者)였는데, 약자끼리 협력하고 연대하여 강자에 맞선 결과, 준식은 미국 본토로 올 수 있었다.

흥인의 도움은 받았으나 준식은 목숨을 걸고 멕시코를 탈출했는데, 그 동력은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그는 정주하고자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돈만 벌어 조선으로 돌아가 고향에서 농사짓고자, 한시적으로 미국에 왔다. 마치 1960~1970년대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사우디 등 열사의 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 몇 년간 나갔던 경우와 흡사했다. 준식을 도와준 아리바(흥인)가 자기 부족과 얼굴 생김새도 유사한 준식에게 평화로운 나후아족 마을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그것을 거절한 것도 그런 그의 꿈 때문이었다.<sup>44</sup> 주요

42 김은빈(편), 백정현(그림), 『한 권으로 읽는 미국사』(서울: 지경사, 2006), 171쪽.

43 흥인 청년 아리바가 뱀에 물렸을 때 목화를 따던 준식이 감독관에게 매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다리에서 뱀의 독을 뺏아내 준 덕분에 그가 살아난 사건을 계기로 아리바의 부족인들이 준식의 탈출을 물심양면 도왔다.

44 주요섭, 앞의 책(2000), 115~116쪽.

넓은 준식의 경우로, 미주 이민 초창기 조선인들은 미국 정주를 목적으로 한 온전한 ‘이민’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한시적 일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준다.

주요섭이 이 작품의 전체 분량의 1/3을 할애하여 전반부에 멕시코 이야기를 넣은 것은 미국행을 약속한 ‘개발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비판적으로 보여 주기 위함도 있겠으나, 준식을 도와준 ‘나후아족’을 보여 주기 위함도 있어 보인다. 당시 멕시코에는 여러 부족의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스페인계 멕시칸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긴 그들은 현재 모두 노예노동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나후아족만은 흥인의 전통과 기품을 잃지 않아 멕시코 정부도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은 거리에서 어깨를 펴고 활보하며 자신들만의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sup>45</sup> 주요섭이 이 작품에 멕시코의 나후아족 이야기를 삽입한 데는, 국적도 인종도 다양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미국에 섞여 살지만,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며 산 종족은 멕시코의 나후아족 같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

### III. 초창기 미국 이주 한인 삶의 리얼리티: ‘헛된’ 구름을 잡으려고

『구름을 잡으려고』의 서사는 준식의 행로를 따라 비교적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905년 미국 본토에 도착한 준식은,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미국 서부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다. 그동안 그는 세 번의 경제적 성취

---

45 위의 책, 109쪽.

와 좌절을 맛본다. 제일 먼저 그는 샌프란시스코 근처 시골에서 ‘나무 찍는’ 노동자(별목공)가 되었다. 성실함 덕분에 1년 만인 1906년에 그는 귀국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모아 조선으로 가서 갈밭, 조밭, 수수밭을 일굴 꿈에 부푼다.<sup>46</sup> 하지만 때마침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그의 집에 불이 나서 그동안 벌어서 숨겨 둔 돈이 모두 잣더미가 되면서 그의 첫 번째 아메리칸 드림은 무산된다.<sup>47</sup>

천재지변으로 모든 것을 잃은 준식은 알코올과 계집, ‘관동은행’(중국인이 하는 도박장)에 빠져 3년을 탕진한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린 그는 상항(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장사를 하여 1~2년 만에 다시 돈을 모은다. 하지만 이때에 그는 귀국 보다 미국 정주를 택하는데, 목사의 권유로 ‘사진결혼’을 했기 때문이었다. 사진결혼은 사진을 교환하여 배우자를 정한 다음, 조선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여 이주노동자의 배우자가 된 사람이 이주 노동자의 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식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제도는 17세기 초 영국에서 ‘사진신부(picture bride)’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데려와 결혼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어 초기에는 ‘우편주문신부(mail-order -bride)’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재미 조선인의 사진결혼은 1908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신사협정이 체결되어 가능했다. 원래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은 1848년 골드러시로 시작되었다. 제일 먼저 중국계 노동자들이 들어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광산과 철도 건설에 종사했다. 하지만 이들이 백인 노동자들과 대립하면서 1870년대에 항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1880년대에 중국인 배척법이 제정되었다.<sup>48</sup> 이후 중국인을 대신해 일본인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들

---

46 위의 책, 175쪽.

47 위의 책, 180~185쪽.

48 중국인의 미국 이민은 1875년 ‘페이지 법(Page Act of 1875)’에서 제한되기 시작해.

역시 백인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을 잠식했고, 농사 경험이 많았던 일본인들이 미국 서부의 농업 부문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백인 노동자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졌다. 이에 1907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명령 589호’를 발령하여 일본인 노동자(조선인 노동자 포함)의 이민을 제한했다. 이 ‘명령 589호’ 발령의 본래 취지는 백인과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제도적으로 막는 데 있었다.<sup>49</sup> 이에 일본인들이 저항했고, 1908년 미국은 일본과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을 체결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이미 미국으로 이주해 온 일본인 노동자의 가족만은 미국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 이로써 일본인(조선인 포함)의 ‘사진결혼’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조선에서 사진신부들이 하와이와 미국 본토로 들어온 것은 1910년부터였고, 그 수는 1,066명에 달했다.<sup>50</sup>

사진신부들은 조선의 가난과 가부장제를 탈피하고 자유와 교육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왔다. 사진신부들은 대체로 신랑에 비해 훨씬 젊고 교육도 많이 받았으며 가정 형편도 나았다.<sup>51</sup> 이들은 미국에서 남성들처럼 경제 활동을 했고, 집안일과 자녀 교육을 담당하면서 여성단체를 만들어 독립기금까지 마련하는 등, 동포사회에서 남성 이상의 역할을 했다. 이들로 인해 미국 내 조선인 이민사회가 기틀을 갖추었고, 번성기를 맞게 되었다.<sup>52</sup>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내 반일 감정이 다시 확산되었고, 일본인(조선인 포함) 남성들

---

1882년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으로 완전히 금지된다. 이 법은 10년 간 임시조치로 제정되었으나 연장되었다. 위키백과 ‘중국인 배척법’ 참고([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A%B5%AD%EC%9D%B8\\_%EB%B0%B0%EC%B2%99%EB%B2%95](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A%B5%AD%EC%9D%B8_%EB%B0%B0%EC%B2%99%EB%B2%95)).

49 노선희, 『사진신부 이야기』(성남: 북코리아, 2023), 77쪽.

50 이광규, 앞의 책(2000), 50쪽.

51 재외동포재단(기획), 성석재·손석춘·오정희·은희경(글), 『100년을 울린 웰릭호의 고동 소리』(서울: 현실문화연구, 2007), 58쪽; 김지원, 「한인 사진신부의 적응과 특성 : 1920~1945 일본인 배척법을 넘어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55(2020), 225쪽.

52 재외동포재단(기획), 위의 책, 58쪽.

이 급조된 사진결혼으로 여성들을 대거 미국으로 이주시킨 결과, 미국 내 일본인 2세가 급증하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일본인 배척운동이 일어난다. 이에 미국 정부는 1924년 ‘동양인 배척법(Immigration Act of 1924)<sup>53</sup>’을 제정하여 일본인의 미국 이주를 금지시켰고, 사진신부도 이때부터 중단되었다.<sup>54</sup>

1910년대 초반, 미국에 온 지 십 수 년이 지난, 마흔 넘은 늙다리 총각 준식은 총 1,000원의 거금을 들여 조선에서 ‘순애’라는 20세 처녀를 데려와 사진결혼을 했다. 스무 살 이상 어린 신부를 맞은 그는 다뉴바에 신접살림을 차리고, 포도원의 일꾼이 되어 성실히 일을 했다. 결혼 8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순애가 아들(지미)을 출산하자 준식은 잠시 흔들리지만, 곧 친자 아닌 지미를 아들로 수용한 그는 순애와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며 돈도 착실히 모은다. 이 무렵에 그는, 조선으로 돌아가는 대신, 다뉴바의 포도밭을 장기 임대하여 포도 농사를 하며 미국에 정주하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하지만 지미가 너댓 살이 되고 통장에 포도원 인수자금이 모일 즈음, 순애가 조선인 유학생과 눈이 맞아 도망감으로써 준식의 두 번째 아메리칸 드림은 무산된다.

순애는 준식과의 결혼 생활이 “사랑 없는 감옥”이었다는 편지를 남긴 채, 포도원 인수자금이 든 통장까지 들고 달아났다.<sup>55</sup> 미친 짐승같이 부르짖던 준식이 석유등을 쓰러뜨리는 바람에 그의 집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는데, 때

53 대규모의 미국 이민은 1890년부터 시작된다. 미국 정부는 미국 인구(1890년 조사 기준)의 3% 이내로 이민자를 제한하는 법을 1921년 제정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 이민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다. 1924년에는 이를 2% 이내로 낮추는 ‘동양인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24)’을 제정했는데, 아시안의 이민 금지가 포함된 이 법은 일본인(조선인 포함)의 배제가 목적이었다. 미국의 이민법들은 인종주의의 산물이지만, 경제적·계급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황수빈, 「미국의 ‘중국인 배척법(1882)’ 제정 원인 재검토」, 『기초 법학연구』 2(2023), 519~547쪽.

54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2016), 289~318쪽.

55 주요섭, 앞의 책(2000), 278쪽.

마침 내린 우박 덕분에 준식과 지미는 살았지만, 집은 전소되었다. 순애의 야반도주로 준식의 두 번째 꿈이 물거품이 된 사건을 주요섭은 준식의 ‘개인적 불운’으로 그려 낸다. 주요섭은 사진신부들이 미국 도착하여 대면한 남편들이 ‘행랑아범 꼴’이어서 도망가는 신부들이 많았고, 체념하고 자녀 교육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적었다.<sup>56</sup> 주요섭은 늙다리 남편 준식을 끝내 사랑 할 수 없었던 사진신부 순애의 야반도주나, 집에 불까지 내고 만 준식의 몸부림을 ‘개인적 불운’ 외에는 달리 설명법이 없는 사건들로 묘사한다.

실의에 빠져 또다시 차이나타운의 술집 ‘청풍’과 ‘관동은행’(도박장)을 들락거리며 방황하던 준식은 또다시 ‘선생님’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부터는 ‘아들 지미의 교육’만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다잡는다. 지미를 조선인 지인의 집에 맡기고 LA로 간 그는 백인 집의 정원사로 취직한다. 이는 백인이 그를 정원 일을 잘하는 일본인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sup>57</sup> 주요섭은 이렇듯, 당시 백인들에게 동양인의 구별은 쉽지 않았고, 동양인들 간에도 다른 종족인 척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40대 후반에 이른 준식은 2년간 정원사로 일하여 모은 돈 500원을 밀친 삼아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 불이 일었던 벼농사에 뛰어든다.<sup>58</sup> 당시 유럽은 세계대전 중이었고, 미국은 그런 유럽에 물자를 팔아 엄청난 호황기를 맞고 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벼농사는 당시 재미 조선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지름길로 인식되었다. 벼농사로 1918년 거금 3,000원을 손에 쥔 준식은 벼농사의 규모를 키운다. 하지만 1919년 가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유럽에서 밀농사가 대풍이 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미곡 수매가가 1/10로 급락 한다. 벼농사에 몰두했던 조선인들이 파산할 때 준식의 세 번째 도전도 실패

---

<sup>56</sup> 위의 책, 197쪽.

<sup>57</sup> 위의 책, 313쪽.

<sup>58</sup> 위의 책, 321쪽.

로 곤두박질친다. 그가 조선을 떠난 지 20년째, 50세 때의 일이었다.<sup>59</sup> 이는 그가 벼농사의 규모를 키운 탓도 있겠으나, 세계 시장의 변화가 결정적 원인 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준식의 입장에서는 시대를 잘못 만난 개인적 ‘불운’ 탓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후 준식에겐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다. “파선한 배의 부리져 나간 나무쪽” 신세가 된 그는 이후 10년간 집시처럼 방랑한다.<sup>60</sup> 1929년, 60세가 된 그는 채과점에서 토마토를 상자에 담기, 야채 쟁기, 조선인 유학생 집에서 가사 일하기, 채과점 하는 조선인 부부의 아기 돌보기 등, 노동 강도가 약하고 임금이 적은 일을 한다. 하지만 곧 그런 일자리마저 얻기 어렵게 된 그는 끼니 해결도 못 하고 거처도 없는 신세가 된다. 와중에 “첫덩이같이 단단한 어깨”를 지닌 15세 아들 지미를 10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sup>61</sup> 도망간 전(前)부인 순애와 15년 만에 잠시 마주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를 구제해 주지 못한다. 64세의 노인이 된 그는 거리를 헤매다 자동차에 치어 LA병원에서 사망 한다.<sup>62</sup> 준식은 미국에서 집주소도, 가족도 없는, 노숙자(homeless)이자 무연고자(body without a related person)로 사망했다. 주요섭은 시신이 된 그의 팔뚝에 멕시코 농장에서 얻은 종의 표식이자 영원한 노예를 뜻하는 화인(火印)이 선명했다고 적었다.<sup>63</sup>

이 작품에 형상화된 미주 이주 초창기 한인 삶의 ‘리얼리티’는 몇 가지로

---

59 위의 책, 336쪽.

60 여기저기를 떠돌며 준식은 아스파라거스 캐기, 하수도공사, 굴 따기, 콩 따기, 말 돌보기, 돼지우리 치기, 시골여관의 변소 닦기, 금주령 시절에 밀주 만드는 사람의 조수 노릇을 한다. 위의 책, 336~337쪽.

61 위의 책, 404쪽.

62 차에 치인 날 그는 예전에 네가 내 돈을 훔쳐갔으니, “이제 네가 나를 먹여 살려라.”라며 순애에게 매달리려고 찾아가던 중이었다. 위의 책, 426쪽.

63 위의 책, 437쪽.

정리될 수 있다. 첫째, 20세기 초 미국은 별다른 기술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몇 년 부지런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둘째, 미국 이주 1세대 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돈’이었다. 준식은 친구 간의 우정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자(父子) 간의 정(情)이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하면서,<sup>64</sup> 선상에서는 ‘춘삼’을, 멕시코에서는 ‘아리바’를, 미국 서부에서는 아내와 아들을 사랑했다. 또한 그는 “돈의 힘이 사랑의 힘 보다 더 크”라고 믿었는데,<sup>65</sup> 이런 가치관은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유학 온 고학생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그려진다. 준식이 만난 고학생 ‘황영걸’, ‘이치덕’, ‘이경신’은 처음엔 학업에 관심을 보였지만, 곧 이주노동자들 못지않게 미국행 목적을 ‘돈’에 두고 행동한다. 그런데 미국에 온 조선인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은 항구나 기차역에서 조선에서 방금 도착한 유학생과 노동자를 꾹 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객줏집에 묵게 하면서 그들을 포도농원 등에 알선해 주고 소개비(커미션)를 받는 자들이었다. 당시 미국에선 서양인의 여관에서 동양인을 재워 주지 않았고,<sup>66</sup> 중국인은 차이나타운 내로 거주가 제한되었는데,<sup>67</sup> 부자가 된 조선인들은 이런 사실을 역이용했다. 제물포항에서 ‘개발회사’ 명패를 걸고 조선인 노동자들을 멕시코나 하와이, 미국 본토에 공급하던 양인이나 일본인 브로커들처럼, 이들은 미국에서 조선 동포를 상대로 인력 브로커 일을 했다.<sup>68</sup> LA 지역 조선인 중 제일 먼저 자동차를 산 ‘곽연하’가 그러했고,<sup>69</sup> ‘김 목사’도 포도밭에 조선인 일부를 공급하여

---

64 위의 책, 164쪽.

65 위의 책, 165쪽.

66 위의 책, 286쪽.

67 위의 책, 312쪽.

68 조선에서 사진신부 공급자를 ‘인간거간꾼’이라 불렀다. 노선희, 앞의 책(2023), 110쪽.

69 주요섭, 앞의 책(2000), 267쪽.

부를 축적했다.<sup>70</sup> 주요섭은 당시의 재미한인은 노동이나 자영업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고, 미국인과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했던 인력 공급을 동포를 상대로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중언한 셈이다. 셋째, 미주 이주 1세대 조선인들에게 현지에서 서바이벌하는 문제는 동양인 차별 문제보다 중차대했다. 주요섭은 스토톤의 메인스트리트를 예로 들어, 그곳에는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서반아인, 묵서가인(멕시코인), 필리핀인, 영국인, 독일인, 파시인(페르시아인, 이란인), 파란인(네덜란드인), 토이기인(튀르키예인)이 살고 있어 인종의 전시장<sup>71</sup>이었다면서, 거기서는 인종 간 종사 업종의 구획이 명확했다고 서술한다. “중국인은 세탁소와 요리(음식점), 일본인은 채소상과 정원꾼, 유대인은 고물상, 묵서가인(멕시코인)은 도로 공부나 전차 선로부, 껌등이는 쓰레기통이나 구두닦이, 정거장 짐 나르기, 희랍인은 이발사, 애란(아일랜드)인은 순사, 인도인은 손금이나 관상쟁이, 조선인은 채소상과 관련된 일”을 주로 했다면서, 그 때문에 이들 간 직접적인 대립이나 마찰이 없었다고 서술한다.<sup>72</sup> 이 작품에서 준식은 가끔 청인이나 일인 행세를 하는데, 이런 대목들은 주요섭이 중국으로 귀화한 덕분에 미국 유학을 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중국 대학의 교수로도 임용될 수 있었던 이력을 연상시키기도 한다.<sup>73</sup> 어쨌든 이 작품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백인이라는 공통의 강자에 대적해야 한 때문인지, 그들 간 마찰은 생략되어 있다.<sup>74</sup> 하지만 실제로 당시 미국 내 유색인종

70 위의 책, 220쪽.

71 위의 책, 297쪽.

72 위의 책, 350쪽.

73 장영우, 앞의 글(2012), 283쪽.

74 주요섭은 이 작품에서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드러내기는 한다.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재민들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가 그들에게 식료품을 배급했다. 이때 준식은 “백인종은 황인보다 우대받을 권리”가 “마치 하늘이 준 권리” 같았다면 동양인 차별을 체감했다. 주요섭, 앞의 책(2000), 185쪽. 또 준식이 포도원을 장기 임대하려 했을 때, 미국이민법에 동양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들 간 갈등이 심했고, 1909년경 하와이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간 적대감이 컸다는 기록이 있다.<sup>75</sup> 넷째, 주요섭은 이 작품에서 당시 재미 한인의 폐습으로 ‘당파 싸움’을 들고 있다. 이는 상해 임정 지도자들 간에도 치열하여 임정이 ‘장군님파’, ‘박사님파’, ‘선생님파’로 삼분되어 있었고,<sup>76</sup> 재미 동포들은 한인교회를 단위로 파당을 지었다고 비판한다.<sup>77</sup> 주요섭은 “당쟁은 조선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닐까? 라며 개탄하기까지 했다.<sup>78</sup> 또 조선 동포들은 저녁식사 후에 주로 도박, 음담패설, 싸움으로 시간을 보냈고,<sup>79</sup>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심했다고도 비판한다.<sup>80</sup> 다섯째, 준식은 자신의 거듭된 실패를 ‘팔자’로 인식할 뿐 아니라,<sup>81</sup> “남편은 주인이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삶의 “철학이요 법률”로 믿는 위인으로 그려져 있다.<sup>82</sup> 주요섭은 당시 재미 조선인을 대표하는 인물인 준식을 전(前)근대적인 성(性)의식을 지니고 있고 팔자 타령을 일삼는 자로 묘사했는데, 이는 리얼리티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또한 준식은 미국에서 35년간 살았지만 미국 문화에 동화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백인이든 흑인이든, 미국인과 교

---

시민권자인 아들 지미의 명의로 임대했다. 주요섭, 앞의 책(2000), 265쪽. 주요섭은 메인 서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그는 당시 조선의 사정을 원경으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여 준식은 1910년 한일합방, 1919년 3.1운동도 알지 못하고 있다.

75 재외동포재단(기획), 앞의 책(2007), 47쪽.

76 주요섭, 앞의 책(2000), 391쪽.

77 ‘핼리우드 파울’ 노천대극장에서 세계민국음악회가 개최되었을 때, 조선처녀합창단(찬양대)은 준비를 마치고도 순서를 뻥크 내어 수만 관중에게 망신을 당했다. LA 지역 한인교회 지휘자들끼리 싸웠기 때문이었다. 위의 책, 401쪽.

78 위의 책, 323~325쪽.

79 위의 책, 408쪽.

80 예컨대, 조선에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미국으로 도망 온 ‘이 장로’를 조롱했던 조선 동포들이 어느 날 그가 부자가 되어 나타나자 그를 존경하게 되는 식이었다. 위의 책, 353쪽.

81 위의 책, 246쪽.

82 위의 책, 247쪽.

류하는 모습도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이 작품에서 준식은 재미 한인 동포 커뮤니티라는 폐쇄적이고 한정적인 네트워크 안에서만 교류하며,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도 겪지 않고 미국으로의 귀화를 고민하지도 않는다. 그에게 미국은 돈벌이의 장소일 뿐, 초지일관 그는 ‘미국 내 조선인’으로 사는데, 이 또 한 주요섭이 파악한 당시 재미 한인의 리얼한 모습이라 하겠다.

#### IV. 『구름을 잡으려고』에 나타난 1930년대 주요섭의 철학

주요섭은 『구름을 잡으려고』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돈벌이’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준식’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백인들의 동양인 차별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있다. 주요섭이 간파한 재미 한인 1세대의 삶은 내셔널리즘적 경계나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보다 하층민이자 단순 노동자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서바이벌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었다. 식민-피식민의 가시적인 구조나 지배-피지배의 비가시적인 구조가 모두 공고했던 20세기 초반, 제국인 미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바다나 육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모래사장’과 같은 ‘경계의 존재들’<sup>83</sup> 이어서 ‘생존’, 즉 ‘서바이벌’만이 그들에겐 중요했던 것이다.

주요섭이 이 작품을 연재한 1935년경 세계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필두로 유럽 국가들이 파시즘화함에 따라 반파쇼 세계인민전선이 형성되던 때였다. 주요섭은 조선에서도 극빈층에 속했던 ‘준식’이 미국에서 성공 또는 실패하는 일은 세계사적 정세 변화나 경기 흐름에 직결된 문제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83 오구마 에이지(저), 전성곤(역), 『‘국민’의 경계』(서울: 소명출판, 2023), 6쪽.

프로스퍼리티! 이 한마디는 전 미국의 ‘슬로건’이었다. 더욱이 로스엔젤레스는 호경기의 표본이었다. [...] 북미 대륙의 파라다이스가 발견된 것이다. [...] 미시시피 강을 건너 광야와 사막으로 방황하던 앵글로 색슨족에게 꿈이 흐르고 젓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발견된 것이었다. 그래서 ‘문명’은 한 걸음 두 걸음 서쪽을 향해 발걸음을 내짚었다. 멕시코의 손으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빼앗았다. [...] 밀려오는 앵글로색슨의 문명을 도와주기 위해 수만의 중국(청국) 노동자들은 넓은 태평양을 건너와서 산을 뚫고 모래를 파고 다리를 놓아 북미대륙에 맨 처음 생긴 대륙횡단철도를 놓아주었다. [...] 종의 피와 땀으로 빚어놓은 문명! 남방 목화밭 이랑마다 흑인의 땀방울이 스며 있고 서방 과수원 이랑마다 또는 대륙 횡단 철도 마디마다 동양인의 땀방울이 스며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문명은 흑인의 것도 아니고 동양인의 것도 아니며 오직 앵글로색슨의 것이었다. [...] 부스러기를 얹어먹는 동양인들! 그러나 그 부스러기는 세계 다른 나라 어디 비해 가장 풍부한 부스러기였다. 벌써 이삼년 동안이나 유럽에서는 모두 독감이 들려 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파괴하느라고 있는 돈을 모두 긁어 가져다가 미국에 바치고 미국으로부터 탄환과 고기와 밀을 사들였다. 유럽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오직 벌판에 마주서서 서로 많이 죽이기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괴상한 살풍경 틈에서 미국은 모든 물품에 말할 수 없는 폭리를 남기면서 전 유럽에 있는 돈을 깡그리 긁어 들이고만 것이다. [...] 어디를 가나 돈이 절령절령하고 풍부했다. 주인의 생활이 그렇게 풍부하니까 뒤로 흘러 떨어지는 부스러기 역시 풍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부스러기를 집어먹는 동양인들도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었다.<sup>84</sup>

인용문에서 주요섭은 준식이 잠시나마 꿈에 근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

84 주요섭, 앞의 책(2000), 312~323쪽.

미국의 호경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19~20세기 초반 미국의 슬로건은 “프로스퍼리티(prosperity, 호경기 혹은 번영)”였는바, 호경기는 앵글로색슨족 외에도 동양인과 흑인의 땀이 더해져 가능했지만, 그 결과는 앵글로색슨족이 독점했다. 그들은 유럽에서 미국 동부로 이주해 와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으로부터 땅을 할양받거나 헐값에 구매해 북아메리카에 영토를 확장했다. 또 서부로 뻗어 가기 위해 값싼 중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 동서 횡단 철도를 깔았고,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빼앗았다. 캘리포니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이었다. 이렇게 서부 개척으로 호경기를 맞자 미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값싼 노동력을 더 많이 들여온다. 때마침 전염병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유럽은 많은 물자를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고, 이 또한 호재가 되어 미국은 20세기 초반 대대적인 호경기(프로스퍼리티)를 맞는다. 미국의 번영에 일조한 동양인은 앵글로색슨족이 독점한 결과물에서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었고, ‘길에 돈이 절렁절렁 넘쳐나는 미국’의 ‘부스러기’만으로도 당시 동양인들은 배를 채우고 남았다. ‘준식’들이 아메리칸 드림의 문턱에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고 주요섭은 설명한다. 당시 재미동포 2만 명이 모아 준 독립자금이 만주와 연해주의 200만 명이 넘던 동포들이 모아 준 독립자금 보다 몇 배나 많았던 사실<sup>85</sup>이 이를 입증한다. 주요섭은 「미국의 사상계와 재미조선인」이라는 글에서도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20세기 초반 미국은 계속되는 호경기여서 무산자들조차 ‘부스러기’로 배가 부른 나라라고 적었다.<sup>86</sup> 주요섭의 이런 서술에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화된 정글 같은 제국 미국을 추동하는 사회진화론<sup>87</sup>적 세

<sup>85</sup> YTN, 「한민족 발자국: 하와이 이민사 ‘맨 처음 떠난 사람들’」, [https://www.youtube.com/watch?v=79\\_FyvG9iNk](https://www.youtube.com/watch?v=79_FyvG9iNk), 2025.2.5.

<sup>86</sup> 주요섭, 「미국 사상계와 재미 조선인」, 『별건곤』 16·17(1928년 12월호), 160쪽.

<sup>87</sup>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은 19세기 영국의 허버트 스펠서(Herbert Spencer,

계인식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이 깔려 있다. 주요섭은 중편소설 『첫사랑 竚』(1925~1927)에서도 중국 유학생인 주인공이 생물학 표본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아메바는 박테리아에게 먹히고 박테리아는 또 파라메시움(짚신벌레)에게 그리고 그것은 다시 저보다 더 큰 놈에게 먹히어 이렇게 이들 한 방울의 세계는 진화되고 있다. 소위 생존경쟁법칙으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참담한 광경이 지금에 눈 아래에서 연출되고 있다. [...] 인류의 세계라는 것 역시 이것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라며 사회진화론적 인식에 지배되는 세계를 우려하는 장면을 그린다. 이어 주인공은 “양육강식과 생존경쟁의 생활법칙을 부인하고 상호부조(相互扶助) 생존상애(生存相愛)의 생활법칙”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한다.<sup>88</sup>

생물계의 진화론을 인간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은 제국들의 식민지 개척을 합리화하고, 진보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약자의 도태나 배제를 정당화했다. 소수 자본가의 독점을 방지했으며, 인종차별의 논리로도 활용되었고, 나치즘을 정당화하는 데도 이용된 바 있다. 이런 연유로 사회진화론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줄곧 비판되어 왔다. 인간사회는 전쟁, 전염병, 재난, 경제 하락 등의 요인이 있어 생물처럼 단선적으로 진화하지 않으며, 강대국과 약소국의 구분이 고정적이지도 않고, 양자를 나누는 기준 또한 모호해서, 인간 세계는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의 논리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용문에서 주요섭은 사회진화론을 명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제국주의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사회진화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분명히 제시한다.

『구름을 잡으려고』에서 주요섭은 미주 이주 초창기 조선인의 삶은 개인적

---

1820~1903)가 안출했다. 이선주, 「근대 저널에서 본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영어 영문학연구』 57-4(2015), 328쪽.

<sup>88</sup> 주요섭, 「첫사랑 竚」, 『사랑손님과 어머니』(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104~106쪽.

불운과 시대적 한계의 접점에서 규정됨을 보여 준다. 특히 준식의 벼농사가 망한 것은 유럽의 정세 변화 때문이었고, 준식이 마지막 일자리를 잃은 것은 미국의 경제대공황 때문으로 설명한다.<sup>89</sup> 준식은 마지막 직업으로 야채가게를 하는 조선 여성의 집에서 ‘애보기’를 했는데, 뉴욕에서 고학하던 그 집 남편이 대공황 때문에 공부를 접고 집으로 돌아와 야채가게를 맡으면서 주인 여자가 애를 직접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하여 그 집을 나온 준식은 직업소개소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는데, 거기엔 유색인종뿐 아니라 백인 실업자들도 많았다.<sup>90</sup> 이후 거리를 배회하던 그는 차에 치어 사망한다. 주요섭은 미국 이민자로서 준식의 비참한 삶과 죽음을 세계사적 흐름 속에 조망함으로써 국제 정세와 경기가 불안정한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헛된 구름’만 쫓아 미국 이주를 단행하려는 조선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누구나 다 저 구름을 잡아보려고 온갖 궁리를 다 해본다. 저 구름을 잡기 위해 사람들은 온갖 것을 희생한다.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내걸고 덤빈다. [...] 안 잡히는 구름을 잡아보겠다고 바라고, 바라고 언제까지나 바라는 이 바람의 노예들! 구름을 잡은 때 그것은 허탕! [...] 준식이는 [...] 공허를 인식하면서 호흡이 끊어지고 말았다.<sup>91</sup>

대공황이 닥치고 세계대전의 전운마저 감돌던 시기에는 경제 패권국인 미국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환대(hospitality)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가 말했듯이, 특정 국가가 이민자나 불법체류자, 난민 등 월경적 인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집단적으로 ‘환

---

89 주요섭, 앞의 책(2000), 407쪽.

90 위의 책, 418쪽.

91 위의 책, 437쪽.

대’하는 일은 ‘상호성’과 ‘평등성’에 입각한 ‘정치적’인 문제여서 현실적으로는 ‘조건적 환대’가 불가피하고,<sup>92</sup> 그마저도 대개는 호경기이나 가능한 일이다. 미국 정부가 ‘동양인 배척법’과 같은, ‘환대’와는 정반대되는 가혹한 이민자 정책을 실시한 것은 자국민의 실업률이 25%가 넘는 대공황이 임박했을 때였다. 특정 국가나 인종의 이민자들이 특정 상권을 장악하고, 동족끼리 배타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현지 문화에의 동화나 시민권 획득, 현지 국민과의 융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등, 정주국에의 충성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환대’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국가 간의 ‘환대’는 경제적 이해가 얹힌 ‘상호성’의 문제<sup>93</sup>이기 때문이다. 250년이 채 안 된 미국사가 전쟁사로 점철되어 있고, 선조들이 피로 획득한 땅을 자신들이 땀으로 개척한 후, 평생 낸 세금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현재의 미국에 이르렀는데, 외국인 이민자들이 대가 없이 자신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환대’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평등성’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주요섭이 지적했듯이, 동양인과 흑인은 미국의 ‘프로스페리티’에 기여한 바가 명백하기에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미국이 동양인과 흑인을 배척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정한 일로 비판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궁극적으로 당시 제국을 지배하던 사회진화론적 세계 인식을 향한 것일 터이다.

92 데리다는 1980년대 중반 프랑스로 유입된 난민과 외국인의 지위 문제에 관한 답변으로 기준의 ‘난민(refugee)’이나 ‘외국인혐오(xenophobe)’와 다른 ‘환대’의 개념을 제시했다. 집단 간 환대는 ‘상호성’과 ‘평등성’에 입각하며, 개인 간 환대는 타자에 대한 주체의 ‘자기 주권’ 없이는 발현될 수 없는 ‘자기성의 외적 발현’인바, 그는 현대 사회가 다양한 관점의 성찰적 수용을 통해 외국인, 실학민, 장애인, 여성, 유색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환대’의 인식과 분위기, 태도를 조성하는 ‘탈구축(déconstruction)’의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자크 데리다·안 뒤푸르망렐(저), 이보경(역), 『환대에 대하여』(서울: 펠로소픽, 2023), 41쪽, 71쪽, 79쪽, 85쪽, 91쪽.

93 황수빈, 앞의 글(2023), 519~546쪽.

『구름을 잡으려고』에서 주요섭의 개입 중, 리얼리티를 초과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다. 좌절과 실의에 빠진 ‘준식’들에게 때마다 ‘지도자’나 ‘선생님’이 ‘혜성처럼’ 나타나 적절한 지도 편달을 해 주고,<sup>94</sup> 아주노동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마다 매번 각성에 이르는 대목들에는 작위성이 묻어난다. 교육학을 전공한 주요섭이 등장인물들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대립 구도로 끌고 간 느낌마저 보인다. 또 60세가 넘어 실직까지 한 준식이 자신의 생존까지 포기하면서 ××회와 ××민보에 현금을 꼬박꼬박 내고, 아들 지미의 학비를 매달 보냈다는 설정도 리얼리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들의 교육비는 그렇다손 쳐도, 짚주립에 허덕이며 길바닥에 떨어진 꽁초를 주워 피고, 공원 벤치에서 노숙하다가 경찰에게 번번이 쫓기는 처지임에도 죽을 때까지 ××회와 ××민보에 현금을 냈다는 서술은 국가우선주의 같은 작가의 신념이 지나치게 개입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준식이 친자가 아닌 지미를 아들로 수용한 일이나, 자신을 떠난 순애에 대해, 직후에는 격분하지만 두고두고 원망의 염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대목에서는 주요섭의 세련됨이 엿보인다. 또한 주요섭은 사진결혼이 비인간적인 혼인 방식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 이후, 조선 여성들 사이에선 자유연애, 자유결혼 욕구가 높았다. 사진신부들은 평균적 교육 수준도 당시 일반 조선 여성이나 재미 조선 남성 노동자들보다 높았고,<sup>95</sup> 또 현지의 남편들에 비해 현격히 젊었기에<sup>96</sup> 그들은 더욱더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갈망했을 것이다. 사진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15세 차이가 보통이었고, 20세 이

---

94 주요섭, 앞의 책(2000), 191쪽.

95 당시 조선 여성의 문맹률은 80%였으나, 사진신부 가운데 교육받은 여성의 비율은 71%에 달했다. 노선희, 앞의 책(2023), 99쪽.

96 이광규, 앞의 책(2000), 50쪽.

상 차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sup>97</sup> 준식과 순애는 후자에 속했다. 또 나이든 사진남편이 가부장적인 경우가 많아, 그들이 짊은 사진신부와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불균형 위에 성사된 사진결혼이 조선에 비해 성 평등의식이 발달하고 성문화가 개방적이던 미국에서 무탈하게 지속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sup>98</sup> 이는 실제 사진결혼의 이혼율이 높았고, 도망간 사진신부들이 많았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sup>99</sup> 야반도주한 순애를 준식이 내내 원망하지 않은 것으로 형상화한 것은 주요섭이 사진결혼을 둘러싼 당시의 이런 사회적 정황을 잘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V. 맷음말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1935)는 한인의 미주 이민 초기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장편소설이다. 여기엔 이민 1세대 조선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혹은 미국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 고투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주요섭은 이 작품이 자신이 유학할 때 미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조선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기록한 ‘실화’라고 말했다.

지금껏 이 작품은 디아스포라나 미국 내 동양인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 내부자의 관점이나 시각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반, 격변하는 세계사의 격랑 속에서 경제패권국인

97 재외동포재단(기획), 앞의 책(2007), 58쪽.

98 이선주·로버트 장,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초창기 이민자들과의 인터뷰』(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279쪽.

99 노선희, 앞의 책(2023), 177~178쪽.

미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세계 정세나 경기 변화와 연동하여 조망한 것이어서, 당시 제국들을 지배했던 사회진화론적 세계 인식에 대한 비판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 작품을 연재하면서 주요섭은 이 작품은 이민 초창기 재미 조선인 삶의 ‘리얼리티’에 자신의 ‘철학’을 가미하여 쓴 작품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작품에 나타난 작가 정신이자 창작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리얼리즘적 측면과 작가의 현실 인식 혹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혹은 철학을 짚어 보고자 했다.

『구름을 잡으려고』의 서사는 배고픔을 탈피하고 부자가 되려고 미국행을 선택한 준식이 멕시코에 내려져 4년간 목화 농장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리다 인디언의 도움으로 미국 본토로 오면서 시작된다. 미국 서부에서 하루빨리 돈을 벌어 귀국해서 고향에서 농사짓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진 그는 30여 년간 미국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성공을 위해 발버둥 쳤지만 끝내 실패하고 현지에서 사망한다. 세 번의 기회를 만났으나 첫 번째는 미국 서부에 난 지진과 화재 때문에, 두 번째는 사진결혼한 아내가 포도농장을 인수할 자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유럽 정세 변화로 캘리포니아 쌀값이 폭락해서 그의 아메리칸 드림은 무산된다.

이 작품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리얼리티는 20세기 초, 호경기를 맞은 미국은 아무런 기술이나 준비 없이 이주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조차 기회의 땅이었다는 사실이다. 주요섭은 준식이 꿈의 성취에 근접할 수 있었던 이유로 그의 개인적 성실성과 미국의 호경기를 들었다. 또 준식이 끝내 꿈의 실현에 실패하고 서바이벌조차 어려워진 이유로는 개인적 불운과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경제공황과 유럽의 정세 악화를 꼽는다. 주요섭이 이 작품을 발표한 1935년경 미국은 대공황의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고, 유럽은 파시즘의 광풍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운마저 감돌고 있었다. 강자들도 불안해진 이 때, 그동안 그들이 흘린 ‘부스러기’로 배를 불려 온 약자인 미국 내 외국인 이

주노동자들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섭은 준식의 서사로, 1935년 경 자신의 철학 혹은 세계 인식인 사회진화론적 인식에 의해 규율되는 자본주의 패권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삶은 디스토피아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이로써 그는 이민자 모집 광고의 평크빛 이야기만 믿고 '헛된 구름'을 잡으려는 환상을 품고, 현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서바이벌에 필요한 어떤 기술도 구비하지 못한 채 미국 이주를 시도하려는 조선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나아가 주요섭은 사회적 약자의 도태나 배제를 정당화하는 제국들의 사회진화론적 세계 인식에 배어 있는 비정함과 비윤리성을 비판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시대일보』, 『신한민보』, 『우라기』, 『동아일보』, 『별건곤』.  
주요섭(저), 백철(편), 『북소리 두동등』, 서울: 대광문화사, 1984.  
주요섭, 「첫사랑값」, 『사랑손님과 어머니』,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서울: 좋은책만들기, 2000.  
주요섭·정정호(편), 『주요섭 소설 전집 1~8』, 서울: 푸른사상, 2023.

### 2. 논자

- 강진구, 「주요섭 소설에 재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어문논집』 57, 2014, 247~274쪽.  
구재진, 「우정과 혼신, 조선 밖에서 조선 국민 되기: 주요섭의 미국 이주 서사 연구」, 『구보학보』 17, 2017, 165~194쪽.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 서울: 중앙일보사, 1993.  
김리안,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함의된 주요섭의 작가의식 연구」, 『한민족어문학』 80, 2018, 269~295쪽.  
김미영,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1930년대 한흑구의 단편소설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48, 2023, 287~319쪽.  
김미영, 「한흑구 문학에 나타난 미국의 영향 연구」, 『한국학』 47-4, 2024, 383~421쪽.  
김양수, 「주요섭 소설 속의 상하이: <인력거꾼>과 <살인>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72, 2018, 103~121쪽.  
김은빈(편), 백정현(그림), 『한 권으로 읽는 미국사』, 서울: 지경사, 2006.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 2016, 289~318쪽.  
김지원, 「한인 사진신부의 적응과 특성: 1920~1945 일본인 배척법을 넘어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55, 2020, 225~246쪽.  
김학균, 「주요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서발터너티’ 연구」, 『배달말』 49, 2011, 147~169쪽.  
노선희, 『사진신부 이야기』, 성남: 북코리아, 2023.  
서승희, 「근대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의 윤리: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를 중

- 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2, 2016, 159~185쪽.
- 오구마 에이지(저), 전성곤(역), 『국민'의 경계』, 서울: 소명출판, 2023.
- 이가성, 「주요섭 문학연구: 외국 체류 경험의 문학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이광규, 『재외동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선주·로버트 장,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초창기 이민자들과의 인터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 이선주, 「근대 저널에서 본 허버트 스판서의 사회진화론」, 『영어영문학연구』 57-4, 2015, 327~351쪽.
- 이승하, 「주요섭 초기작 중 상해 무대 소설의 의의」, 『비교한국학』 17-3, 2009, 399~427쪽.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서울: 지식산업사, 1998.
- 이희준, 「춘원소설의 동성애에 관한 고찰」, 『어문학』 49, 1988, 163~191쪽.
- 임진희, 「초국가적 한흑 도시 공간: 레너드 장의 『식료품점』」, 김민정·이경란, 『미국 이민 소설의 초국가적 역동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277~302쪽.
- 자크 데리다·안 뒤푸르망텔(저), 이보경(역), 『환대에 대하여』, 서울: 필로소피, 2023.
- 장영우, 「작품해설: 한국 근대소설사의 결락과 보완」, 장영우(책임편집), 『주요섭 중단편 선: 사랑손님과 어머니』, 서울: 문학과사상사, 2012, 281~306쪽.
- 재외동포재단(기획), 성석제·손석춘·오정희·은희경(글), 『100년을 울린 겔릭호의 고동 소리』,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7.
- 정정호, 「주요섭 문학에 나타난 情의 윤리와 사랑의 원리: 장편『구름을 잡으려고』의 기독교적 읽기 시론」, 『비교문학』 61, 2013, 303~328쪽.
- 정주아, 「국제 노동 시장의 경험과 민족주의자의 딜레마: 주요섭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52, 2020, 73~109쪽.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서울: 성문각, 1980.
- 최유학, 「주요섭의 『인력거꾼』과 육달부의 『박전』 비교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3, 2014, 199~224쪽.
- 최학송, 「해방 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재중 조선인 문학 연구』, 서울: 소명출판 2013, 197~225쪽.
- 황수빈, 「미국의 '중국인 배척법(1882)' 제정 원인 재검토」, 『기초법학연구』 2, 2023, 519~546쪽.

### 3. 기타

이현, 「1893년 시카고박람회 한국전시관 복원의 의미: 한인 미주이민사 10년 앞당겨야 한다」, 《통일한국》, 2005년 1월호, 74~75쪽.

주요섭, 「미국의 사상계와 재미조선인」, 《별건곤》 16·17(1928년 12월호), 160쪽.

「一着은 朱耀燮君, 상해서 거행한 마라손」, 《동아일보》, 1924년 12월 25일, 2쪽.

주요섭, 「7회 극동 올림픽 대회 이야기(속)」, 《시대일보》, 1925년 7월 6일, 4면.

주요섭, 「유미외기」, 《동아일보》, 1930년 2월 22일~4월 11일.

주요섭, 「내눈에 빛은 영기」, 《우라기》 3(1928년 4월호).

주요섭, 「미국의 사상계와 재미 조선인」, 《별건곤》 16·17(1928년 12월호), 159~161쪽.

주요섭, 「미국문명의 가치관」, 《동아일보》, 1930년 2월 6일, 4쪽.

주요섭, 「작가의 말」, 《동아일보》, 1935년 2월 16일, 2쪽.

주요섭, 「무정부주의를 반박함」, 《신한민보》, 1927년 11월 3일, 4쪽.

주요섭, 「군비축소회의의 유래와 현세」, 《동아일보》, 1932년 1월 1~3일, 1쪽.

위키백과 '중국인 배척법',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A%B5%AD%EC%9D%B8\\_%EB%B0%EC%B2%99%EB%B2%95](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A%B5%AD%EC%9D%B8_%EB%B0%EC%B2%99%EB%B2%95).

YTN KOREAN, 「한민족 빨자국: 하와이 이민사 '맨 처음 떠난 사람들'」, [https://www.youtube.com/watch?v=79\\_FyvG9iNk](https://www.youtube.com/watch?v=79_FyvG9iNk), 2025. 2. 5.

## 국문초록

이 글은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에서 미국 이민 초창기 한인 삶의 리얼리티와 작가의 철학을 분석한 것이다. 주인공 준식은 부자가 되려고 미국행을 택했지만 멕시코에 내려져 목화 농장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리다 4년 만에 미국 본토로 간다. 그는 30여 년간 미국 서부에서 세 번이나 꿈의 실현에 근접했으나, 결국 실패한다. 개인적 불운과 미국의 경제공황, 유럽의 정세 변화 때문이었다. 이 작품의 리얼리티는 20세기 초, 호경기의 미국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조차 경제적 성공이 가능한 시공간이었다는 점, 초창기 조선인 이민자의 성공 여부는 개인적 성실성 외에도 국제적 경기 변동이나 정세 변화와 깊이 관련된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 드러난 주요섭의 철학은, 1929년부터 미국이 대공황에 접어들고 유럽의 정세마저 악화되자, 약소민족 출신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환대받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 배제와 도태의 대상이 되었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이로써 주요섭은 사회진화론적 세계 인식의 비윤리성을 고발하고, 준비 없이 핑크빛 광고만 믿고 부를 쫓아 무모하게 미주로 이주하려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투고일 2025. 6. 22.

심사일 2025. 8. 25.

제재 확정일 2025. 8. 27.

주제어(keywords) 주요섭(Joo Yo-seop), 『구름을 잡으려고』(*Trying to Catch the Clouds*), 외국인 이주노동자(foreign migrant worker),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 Abstract

A Study on the Novel *Trying to Catch the Clouds* by Joo Yo-seop

Kim, Mi Young

This text analyzes the reality of early Korean immigrant lif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uthor's philosophy in *Trying to Catch the Clouds* by Joo Yo-seop. The protagonist, Jun-sik, chose to go to America in hopes of becoming wealthy, but subjected to slave labor on a cotton farm in Mexico, he moves to the U.S. mainland after four years. Over the course of 30 years in the American West, he comes close to realizing his dreams three times, but ultimately fails. His personal misfortune, the economic depression in the U.S., and shifts in European political dynamics are to blame. This work highlights a reality where, in the early 20th century, during America's economic boom, foreign migrant workers still had a chance at financial success. However, the success of early Korean immigrants was deeply connected not only to personal diligence but also to international economic fluctuations and political changes. Joo Yo-seop's philosophy, expressed through this work, critiques the reality that, when the U.S. entered the Great Depression in 1929 and European political tensions worsened, foreign migrant workers from smaller nations were increasingly unwelcome, becoming targets of exclusion and marginalization. Joo Yo-seop thus denounces the unethical nature of Social Darwinism and issues a warning to early Korean immigrants who, without preparation and by blindly trusting rosy advertisements of wealth, recklessly pursued migration to the Americas.